



[경제종합]
완성차업계
반도체·파업 이슈에
경영정상화 '급제동'
04

[라이프]
식어버린 라면
뜨거운 가정간편식
식품업계 회비
L1



아동센터에 신발 선물하고, 소상공인 판로개척 앞장 소외이웃과 발맞춰 한걸음… 새 신 신고 희망으로 ‘풀짝’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ABC마트

ABC-MART

ABC마트는 신발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행복을 나누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래 세대를 후원하고, 소상공인과 협력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국내외로 제품을 지원하며 나눔의 가치를 구현한다. 나아가 한국 신발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외계층과 발맞춰 걷기

ABC마트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한 점, 한 걸음' 캠페인을 올해부터 진행 중이다.

'한 점, 한 걸음' 캠페인은 ABC마트와 밀알복지재단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후원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이다. 지난 1월 1차에 이어 5월 3일 2차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도움이 필요한 기관의 인근 매장을 지정해 복지기관 아동·청소년에게 정기적으로 신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ABC마트 씨코니 슈즈, 호킨스 샌들 등 여러 제품과 응원 메시지를 담은 선물키트를 각 매장과 결연을 맺은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

1월 캠페인 참여 매장은 ABC마트 부산서면태화점과 포항중앙점, 비롯해 그랜드스테이지 강릉금학점, 광주중창로점, 대구동성로중앙점, 스텐다드플러스 대전은행점 등으로, 2020년 태풍 피해를 입었거나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곳 위주였다.

2차에 추가로 선정된 11~20호 매장은 ABC마트 서울대입구역점, 그랜드스테이지 신제주연동점, 창원상남점 등이다. ABC마트는 1, 2차 캠페인을 통해 20개 후원 매장, 총 657명의 아동·청소년과 결연을 맺었으며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정기 지원을 펼쳐나가고 있다.

해외지역으로는 올초 국제구호개발 기관 글로벌비전과 베트남 빈곤농가의 지역주민 및 아동들에게 5억원 상당의 신발 2만2000족을 기부한 것이 있다.

기부 수혜지역은 베트남의 대표 낙후농촌지역인 번째(Ben Tre)성으로, 글로벌비전이 현지 주민들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으로 도움을 주는 곳이다.

ABC마트의 해외기부는 단순기부가 아닌 '고객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해 12월 흥대 4개 매장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신발 수량만큼 새 신발로 베트남 빈민농가에 일대일 기부되는 '원포원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며 3주간 약 2300족의 신발을 모은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생

ABC마트는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상생, 신뢰의 가치도 전달하고 있다. 유통채널 및 판매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장해 지역민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복지관 아동·청소년에 신발 지원
베트남 농가에 5억상당 신발 기부**

**소상공인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로컬브랜드 입점·비즈니스 기회**

**폭염에 힘든 어르신에 쿨키트 전달
장화 기부 등 수해 복구 현장 지원**

이를 위해 2020년 12월에 부산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슈즈 브랜드 4곳을 자사 공식 온라인몰인 아트닷컴에 입점시키며, 입점 수수료 감면 혜택과 다각도의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했다.

이어 4월 27일 '2021 소상공인 지원 사업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신발산업과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신발 영세업자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번째 프로젝트는 서울시 성수동 수제화 활성화를 위해 신진 디자이너 발굴, 아카데미 운영 등을 맡은 '성수수제화'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소규모 수제화 브랜드들을 선정해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지원에 나섰다.

ABC마트는 한국 신발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지속 도모하며, 로컬 브랜드들에게 입점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폭염과 호우 피해 지역 살피기

지난해 8월, ABC마트는 밀알복지재단과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에 이중 고를 겪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위한 지원을 진행했다. 밀알복지재단이 진행하는 '독거노인에 더욱 기록한 올여름' 캠페인에 포함되는 지원 키트 구성 품으로 100족의 제품을 기탁한 것이다.

ABC마트가 준비한 제품은 호킨스의 캐주얼 운동화 2종으로 무게가 가볍고 쿠셔닝이 뛰어나 어르신들이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다. 준비된 운동화 2종은 밀알복지재단이 이번 캠페인을 위해 제작한 '시원한 마음 한가득' 쿨 키트 구성품에 담겨 전국 각지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됐다.

같은 달 13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피해 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지원 인력을 돋기 위해 약 5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재민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수해지역의 피해 복구에 동참하는 뜻에서 구호물품 지원에 참여했다.

ABC마트가 전달한 재해 구호물품은 피해 지역 수재민과 복구작업 중인 지원 인력이 현장에서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슬리퍼)와 양말 등이다. 구호물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도움으로 전국 각지 피해지역과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구성품을 달리해 전달했다.

이후 8월 18일에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 복구 현장 지원을 위해 약 2000만원 상당의 장화를 추가로 기부했다. 1차 구호물품을 지원한 데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세 여파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피해 현장 복구 작업이 재개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준비해 전달하게 됐다.

한편, ABC마트는 올해 2월 말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성금 1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시기였다. 전달된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자가격리된 시민과 의료진 등 관계자들을 위해 긴급 구호 물품, 방역 물품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

ABC마트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과 지역 사회를 돌보는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성남FC 코치 코로나19 확진…선수단 전원검사

▲“日, 도쿄올림픽 외국 선수 ‘버스투어’ 계획중”

/사진 뉴시스

▲英윌리엄 “이탈리아 유로2020 우승 축하”…팬들은 난동

▲KBL 삼성에서 뛰었던 모슬리, NBA 올랜도 사령탑 선임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여름은 BTS 세상”…美·英 매체 ‘파미션 투 댄스’ 집중조명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입장 제한하고 사전 예약 강화

/사진 뉴시스

